



전주 JB문화공간서 황재형 화백 초청 대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이 지난 10일 한국의 대표 리얼리즘 화가로 꼽히는 황재형 화백을 초청해 '미술의 시간 거장의 순간'을 개최했다.

'미술의 시간 거장의 순간'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작품 세계와 한국 미술의 현주소까지 알아보는 전주 JB문화공간의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4명의 국내 미술계 유명 인사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시간으로 황재형 화백은 한국의 대표적 리얼리즘 화가로서 중앙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부터 강원도 태백, 정선 등지의 탄광촌에서 3년 간 실제로 광부로 일하며 그곳의 삶과 풍경을 화폭에 담아 '광부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흙, 머리카라, 흑연 등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사실적 표현과 주제 전달로 한국 리얼리즘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날 황재형 화백은 대표작 7점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에 얹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롯해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 태백 탄광촌에 자리 잡은 배경, 독특한 표현 기법에 대한 열광, 그리고 그 모두를 관통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진정성 있게 들려주었다.

70여 명의 참여자들은 "그림 한 점 한 점에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뜻함이 느껴진다", "대형 작품들인 만큼 전시가 있을 때 꼭 직접 가서 원화를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전 장수지사 등, 노인·장애인복지관서 봉사

한국전력 장수지사와 한전MCS 장수지점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장수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수군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으로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하였으며 점심 무료급식 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과 소통하며 뜻깊은 날을 함께했다. /오상근 기자



고창소방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 나서

고창소방서는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 내 흡연 금지를 철저히 지키도록 출입 검사와 홍보활동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주유소, 저장탱크, 고압가스 충전소 등은 인화성 물질이 많은 만큼 작은 불씨 하나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와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안전교육 △흡연금지 표지 정비 △CCTV 확대 △불시 단속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와 법령 안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의용소방대연합회, 메이오투한방병원과 협약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윤정순)는 12일 메디오투한방병원 회의실에서 메디오투한방병원(병원장 박영근)과 의용소방대원과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메디오투한방병원은 고압산소치료(다이올), 침·약침·추나요법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이며, 도내 14개 시군 대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소년들, 정치 주체로서 의견 표현 '주목'

전주·군산·순창·장수·진안YMCA 소속 청소년들, '모의투표 출범식' 개최

전북 지역 청소년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의투표 출범식을 열고 정치 참여의 의지를 밝혔다.

전주·군산·순창·장수·진안YMCA 소속 청소년들은 최근 전주 종패지관 앞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전북YMCA청소년모의투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 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선거 체험이 아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으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도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청소년 대표들이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후위기 대응,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확대, 청소년 맞춤형 정책 마련 등을 요구사항으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청소년 참여를 목표로 온·오프라인에서 모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YMCA청소년모의투표준비위원회는 전북 지역의 거점 역할을 맡아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년모의투표준비위원회는 전북 지역의 거점 역할을 맡아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주 YMCA 김종기 이사장은 "청소년이 단순히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오늘의 민주시민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들의 참여가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많은 이가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참정권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맞춤 돌봄 '큰 호응'

경증 치매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가서서비스제공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가 추진하는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보건소는 원활한 돌봄 제공을 위하여 3개의 권역으로 나뉜 권역별 위탁 돌봄 수행기관(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인복지관,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 돌봄지원사가 인지교육과 복약확인 등 치매관리는 물론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 생활용품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치매 어르신 83명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남원사회복지관은 예비사회적기업 '비니투 없는 점빵'과 연계하여 직접 손으로 짠 카네이션과 숙절편을 준비해 홀로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에게 전달해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지리산노인복지센터도 카네이션 전달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과 정서적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으며, 각 수행기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과의



정서적 교감과 만남의 장을 열어 가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해소사업은 유사 중복지사업(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치매관리팀(620-7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센터장은 "개인별 맞춤 돌봄 설계를 바탕으로, 재가 치매 어르신에게 치매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대병원, '청렴실천·밝은미래' 결의

전북대학교병원은 12일 본관 지하1층 모악홀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과 부패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병원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투명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종철 병원장과 정경복 상임감사 등 주요 보직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결의문 낭독, 상임감사 당부말씀, 청렴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실천대회에서는 전북대병원 홍보단 '홍보미'가 청렴결의문을 낭독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자리를 빛냈다.

임직원들은 청렴 결의문을 통해 △청렴한 업무 수행 △부패 예방을 위한 실천 지침 준수 △투명한 직무 수행 등을 선언하고 병원의 핵심 가치로서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청렴실천 밝은 미래!'가 적힌 청렴 슬로건을 함께 펼쳐 보이며, 참석자 전원이 청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 하나된 마음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부패 공익신고 활성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복 상임감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렴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든 임직원



이 청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 직원이 청렴 실천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 것은 병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과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결론

▲김관우(김민수·박숙경씨 장남)군·이다경(이선재 전 전북소방본부장·양정호 전 전주신성초 교장 차녀)양= 일시: 25일(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데미호텔 2층 마레스틱 볼룸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비 합동 대피훈련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12일 무주군 설천면 불대마을에서 유관기관인 무주군, 무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산사태 재난대비 사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급변 대피훈련 장소인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되었으며, 4곳이 A등급이며 토석류 취약지역이 민가 500m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위험한 지역이다.

또한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자체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주민대피방송, 안전취약계층 어르신 1:1 매칭 대피 지원, 대피장소 이동로 확보 등을 점검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으로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식 개최

12일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제21대통령선거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위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하였다.

선거경비통합사무실은 주요인사 신변보호, 유세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투·개표소 안전유지 등 경비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기간 24시간 운영된다.

류관송 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운영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2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선거종료시 까지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 경비 상황 체제를 유지하고 선거 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및 보고·전파, 투표용지 보관소, 투·개표소순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정호 순창경찰서장은 경찰은 대선과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선거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왕일 기자

김제 성덕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복지기동대(대장 이귀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폐가전 및 현 매트리스를 수거·폐기하는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 섰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스스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기동대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오래된 냉장고, 사용이 어려운 현 매트리스 등을 수거해 안전하게 대로변에 운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용지면, 2025년 경로 효(孝)잔치 개최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어울림봉사회(회장 조준삼)와 사회단체가 지난 10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2025년 용지면 경로효(孝)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은 참석자들은 식전 공연인 농악을 시작으로 개막식, 라인댄스, 난타, 스포츠탄스 등의 문화공연과 흥겨운 한마당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즐기며 웃음이 흘러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